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코러스 활용에 나타난 컨버전스적 특성 연구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를 중심으로

이서현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강사¹⁾

초록

본 연구는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 나타난 코러스 활용방법을 들뢰즈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동시대 한국 창작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동시대 춤에서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경향인 다양한 무대요소들의 해체와 결합에 주목해 삶의 척도로부터 도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들뢰즈의 잠재적 시각이 어떻게 한국 창작춤에서 발현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했다. 특히 고대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특성인 코러스(chorus)의 역할이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는 무대요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접속하면서 표현되는지 해석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한국 창작춤의 관점을 다층적인 방식으로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질 들뢰즈, 한국 창작춤, 코러스,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예술적 관점에 근거하여 현재 한국의 전통적인 뿌리를 지키면서도 컨버전스한 연출 감각을 통해 동시대성을 표현하는 차수정의 작품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 나타난 잠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요소였던 '코러스(chorus)'의 활용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한국 창작춤이 다양한 무대요소들을 어떻게 색다른 방법으로 융해하며 들뢰즈의 불확정적인 이미지를 발현하고 있는지 해석해볼 것이다. '하늘 아래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로 동시대 춤의 특성을 설명할 만큼 현재 춤 무대의 모습은 굉장히 혼종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김말복, 2011). 이러한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는 융복합적인 시대적 흐름을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는 코러스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차수정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잠시나마 스스로가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세계로 이동 가능한 지점이 바로 춤의 시공간임을 들뢰즈의 잠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발견하고자 한다.

들뢰즈에게 잠재적인 시공간은 완벽하게 조직화되는 상황에 선행해 어떤 일이든 발생 가능한 장소이다. 그의 시공간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대 진리는 없어지고 끊임없이 교차하고 중첩하는 우발적인 과정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들뢰즈의 시공간은 신체와 그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접속하면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들뢰즈의 신체에 잠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현실화된 신체의 외적인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새롭게 궤적을 그릴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나일화, 2010). 특히 들뢰즈는 자신의 신체가 가장 잘 목격되는 곳으로 예술공간을 언급한다. 그에게 예술은 삶에서의 가장 작은 차이를 꺼내 새롭게 세상을 지각할 수 있게 만드는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술 안에서 운동하는 신체의 감각적 현현을 통해 현실의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들뢰즈의 예술론에서 발견되는 잠재적 특성을 근거로 삼아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나타나는 컨버전스한 춤의 표현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들뢰즈의 예술론을 이해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라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성찰을 거듭하는 현대 한국 창작춤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코러스와 주요인물, 삶과 죽음, 움직임과 소리, 전통과 현대 등의 이분법적 가치토대에 저항하며 한국 창작춤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차수정의 작품을 통해 기존 무용작업의 토대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표현을 탐구하며 새로운 사고와 변화를 한국 창작춤 무대에 구현할 수 있는 힘을 모색해 볼 것이다.

1.2. 연구방법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는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를 가로지르는 그의 신체 개념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그의 예술비평에서 나타난 신체의 잠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들뢰즈가 자신의 철학적 사유가 실행되는 실천대상으로 예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예술논의에서 나타난 신체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늘 새롭게 변신하므로, 한국 창작춤 작업에 나타난 무한한 '잠재성'을 해석하는 토대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에서는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 나타난 '코러스'의 활용방식을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시대성을 갖춘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한한 생성의 힘을 긍정하는 들뢰즈 사유의 핵심인 잠재성의 개념으로 현대 한국 창작춤이 전통과 현대의 경계 지점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이미지를 발현시킬지에 관한 방향성을 찾아볼 것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의 핵심인 잠재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할 것이다. 그의 대표 저서 『차이와 반복 *Difference et Repetition*』(1968/2004), 감각의 논리 *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1981/2008), 『시네마 1 *Cinema I*』(1983/2017) 그리고 가타리와 함께 쓴 『천개의 고원 *Mille plateaux*』(1980/2003)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문 및 논평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해외사이트나 유튜브의 영상물을 통해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2.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 이해

2.1. 들뢰즈 신체의 잠재성

들뢰즈에 의하면 비재현성을 가진 예술은 정서와 지각의 결합으로 이뤄진 감각들의 블록이다(김재인, 2013). 이는 일상의 층위에서 사고 가능한 감정과 지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서와 지각의 총체로서 감각은 뇌로 인해서 조종되는 감각적인 것과 표피적이고 관습적인 느낌과도 구별이 된다. 감각은 서사적인 구성과 재현적인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불현듯 신체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이는 상투적인 요소들로 뒤덮인 신체를 넘어서 색다른 사유를 체험하는 주체적인 신체로 변용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들뢰즈에게 이 같은 신체의 변형은 예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 진다고 여겨진다.

들뢰즈에게 예술은 비가시적인 힘들을 포착함으로써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신체 안에 존재하는 감각을 토대로 드러난다. 여기에서의 힘은 신체에 진동을 일으켜서 가시화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감각이라 할 수 없다. 즉 이것은 공감각적인 진동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신체이다. 이에 잠재적이라는 의미는 '현실화되기 이전'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을 통해 발현되는 들뢰즈의 신체는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시공간적인 의미를 탈주하며 위계적이고 이항 대립적인 구조를 해체한다고

살필 수 있다. 수직적인 차이에서 수평적인 차이로의 전환인 것이다. 서로 다른 다수의 힘들이 투쟁하고 접속하며 창조적인 주체로 변신하는 들뢰즈의 신체는 선입견을 소거하고 일상에 관한 시각을 열어준다.

특히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성의 힘을 발산하는 들뢰즈의 신체는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e)’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와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의 신체에 관한 사유를 토대로 해서 자신만의 신체 개념을 만들어낸다. 들뢰즈는 이 개념을 극작가 아르토(Antonin Artaud)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그는 “유기체를 넘어, 또한 실제로 삶을 경험한 신체의 한계로서”라는 아르토의 문장을 빌려 자신의 신체 사유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Sauvagnargues, 2005/2009). 들뢰즈에게 기관 없는 신체란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한계에 다다른 사유이며 동시에 사유의 경계 너머에서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키길 요청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클리셰를 통하게 이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의 기관들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다.

결국 들뢰즈가 항거하고 싶은 것은 기관이 아니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구성이라 볼 수 있다. 기관은 통일성과 위계성을 지니는 자기중심적인 신체이다. 이 같은 신체는 두뇌라는 중심의 기관이 그 외의 기관들을 조종하는 위계적인 구조로 작동한다. 그러나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들의 이름, 역할, 위치 등 어떤 것도 확정되기 전의 신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현실에 실재하는 고정되고 안정된 신체가 아닌 강도(intensité)적인 다수의 힘들의 관계로 구성되는 잠재성의 장인 것이다(Deleuze, 1981/1995). 따라서 ‘잠재성’이란 성질을 담은 들뢰즈의 신체는 플라톤주의를 전복하여 이분법적 구조를 깨뜨리고자 했던 들뢰즈 사유 전체를 가로지르는 개념임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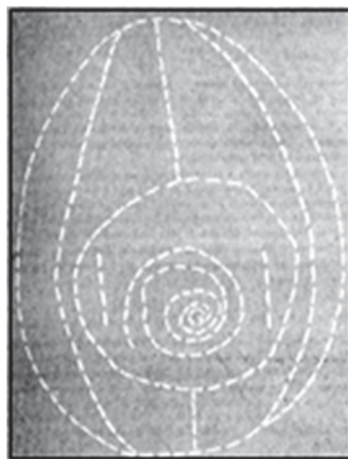


그림 1 도곤족의 알과 강도의 배분

들뢰즈는 가타리(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와 함께 쓴 자신의 책 『천개의 고원 *Mille plateaux*』 (1980/2003)에서 6장의 기관 없는 신체의 도입에 도곤족의 알과 강도의 배분이라는 절과 함께 <그림 1>과 동일한 이미지를 넣어 놓았다. 여기에서 알은 들뢰즈의 신체와 같은 것이다. 또한 삶의 한계 너머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신체의 생명력을 제시하는 모델로 의미화된다. 알은 ‘강도=0’인 상태이며,

기관들의 역할이 확정되기 전의 미분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강도가 0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이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잠재적인 영역에 있던 알은 강도가 들어가면 <그림 1>의 흰 점선과 같이 분화되기 시작한다. 즉 강도가 어떤 크기로 어떻게 가해졌는지에 따라서 수없이 다중적인 모습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4).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층위로서의 다수의 힘들의 운동이 일어나는, 즉 강도 0의 신체를 분화함으로써 가시화되는 들뢰즈의 신체를 잠재성의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에서 잠재성의 의미

들뢰즈에게 잠재적 층위에 있는 신체의 분화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분화과정이 일어나는 예술공간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창조성을 지닌 신체를 나타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예술적 경험은 현실화된 신체의 표피적인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변신하며 궤적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신체의 내재적인 힘을 긍정하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들뢰즈의 신체는 친숙한 모든 것들과 결별하며 수동적 정념으로 가득 찬 균열된 모습 그 자체이며 끊임없이 변형될 수 있다(나일화, 2010).

예술공간에서 목격 가능한 신체는 삶 안에서 지각할 수 없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강렬한 힘을 발현하도록 이끌어 준다. 즉 예술공간에 던져진 주체는 삶의 한계를 체험한 유기적인 신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들뢰즈(서동욱, 2014)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삶이 천편일률적이 될수록, 가속화되는 소비재의 재생산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예술은 더 일상적 삶에 밀착해야 한다. 일상에서 어떤 작은 차이를 캐내 반복의 다른 수준들 사이에서 동시에 유희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본래의] 차이가 가장 낮은 선별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반복적인 어떤 힘 자체를 통해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익숙한 일상에 대해 완벽히 새로운 무엇을 생성해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작은 차이들에 중점을 두고 재현에 선행하는 심층적 층위인 것이다. 또한 규범화된 일상에서 지각할 수 없던 상이한 힘들이 독특하게 결합하는 감성적 범주의 영역이다.

예술에서 감각적인 창출이란 자신을 온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또 다른 무엇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신체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을 포착해서 그려내고 지각 불가능한 것을 지각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지각 불가능성은 사회적인 담론에서 작동되어온 지각의 틀을 변동시킴으로써 정적인 것, 겉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 파동을 일으키는 운동을 지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에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던 소외된 모든 것들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이나현, 2011).

따라서 알처럼 미분화된 인간은 스스로의 감각에 즉시 반응하면서 주어진 삶을 다시 생성하는 인간이라 볼 수 있다. 들뢰즈는 변하지 않는 외형적인 상태의 무언가를 만들고 관람하는 것은 단편적인

감각으로도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자기-정립’의 형태로 실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예술에서 가능해지는 공감각을 경험해야 한다고 본다(김재인, 2013).

이러한 신체는 들뢰즈에게 ‘촉지적(haptique)’이다. 촉지적인 것은 광학적인 시각과는 다른 시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감각이다. 이는 단순히 ‘본다’라는 시각적인 기능이 아니라 ‘만지다’라는 촉각적인 기능까지 담고 있는 동사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는 눈과 촉각 사이의 관계를 혼합한 새로운 시선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들뢰즈의 신체는 ‘손으로 보는 촉각’ 혹은 ‘눈으로 만지는 시각’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Deleuze, 1981/1995). 그리고 이 신체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언제나 운동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본질적 매체인 춤은 그 어떤 예술보다 촉지적이라는 감각을 발현하는 것으로 살필 수 있다. 무엇보다 관습적이고 규정적인 개념이나 표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시대 춤 무대는 손과 눈의 종속 관계가 없는 시각이 촉각처럼 행동하는 또는 그 반대의 그러한 바라봄의 공간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들뢰즈의 예술론에서 나타나는 공감각의 현전으로 신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한국의 전통적 근간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연출 감각을 통해 동시대성을 보여주는 차수정의 작품 「청, The Blue 바다를 열다」에 나타나는 신체의 잠재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들뢰즈에게 회화는 재현적인 개념과 관련 없이 사물이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다. 그에게 회화가 지닌 본질은 선과 색을 통해 비가시적 힘이 나타나도록 하는 도전이다. 그래서 회화작품 공간을 통해 재현의 구상적 측면과는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다층적 감각의 공명을 발견할 수 있다(서동욱, 2002). 또한 들뢰즈는 프루스트(Proust)의 문체를 재현성을 벗어난 영역에서 힘을 포착해 감각을 지각 가능하게 하는 현실 창작자로서 본다. 프루스트의 문체는 서구 전통 형이상학의 동일성의 사유 이미지를 벗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루스트의 문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유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호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 사유받기를 강요 받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프루스트를 통해 ‘사유의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고자 시도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예술은 어떤 기호로 작용되며 진정한 사유의 출발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신체를 수단으로 삼는 춤에서도 새로운 어떤 것으로 늘 변할 수 있는 신체의 잠재성을 찾을 수 있어 보인다. 감상자는 어떤 것을 사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고도 공연 감상 중에 또는 끝난 후에도 예기치 않은 감정이나 기억을 순간순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어떤 표피적 이해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시대 춤에서 다양한 무대요소들이 서로 다채롭게 해체, 변형, 결합하는 신체 이미지를 들뢰즈의 신체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들뢰즈는 영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유방식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가 영화에 관심을 지닌 이유는 영화가 지니는 ‘기계적인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형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계적 테크놀로지로 창조되는 영화 이미지는 불연속적이고 불특정적인 순간들로 재생산되고, 여기에는 언제나 시간과 운동 안에서 끝없이 움직이는 신체를 발견할

수 있다(나일화, 2010). 들뢰즈에 따르면 영화에는 일상의 사건이나 대화들이 분열되고 선형적인 시간이나 규정된 이미지가 소거되어 쉬지 않고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행하는 신체가 표출된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영화는 보편적이고 관습적인 반응이나 감정, 즉 액션, 드라마, 스릴러 등 각각의 장르에 일치하는 이야기 구조와 감정의 전개로부터 해방되어 우리 자신의 감정에 전적으로 솔직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는 현대 영화에 표출되는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들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 불가능했던 순수한 현전으로서의 사유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예술론에서 발견되는 신체의 잠재적인 특성을 토대로 「清, The Blue 바다를 열다」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시대 무용예술이 현실세계에서 감각할 수 없었던 차원을 열어주는 시공간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3.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를 통해 본 「清,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코러스 활용 논의

3.1. 코러스의 역할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추어지는 코러스는 인간이 디오니소스적인 힘과 만나 개인의 신체적 자아에 관한 확신을 얻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김말복, 2015). 코러스의 역할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분류하는 데에 차이는 있지만, 크게 극중인물의 역할,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관객의 역할, 극과 관객 사이의 매개자 역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행하는 코러스는 현대 공연예술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어 활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현대 공연예술에서 변용된 코러스

먼저 코러스의 극중인물의 역할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초기에는 극의 주요인물이 1 명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명이 여러 역할을 하기 위해 무대를 나갔다 들어와야 했으므로 코러스의 비중이 크게 작용했다. 코러스는 극의 시작을 알리거나 극의 전개가 고조되는 상황을 더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또 무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가장 먼저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요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적인 마음을 공감하거나 충고하기도 했고 그 반대의 조롱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코러스는 대부분 노래, 춤, 대사 등의 요소를 혼용하며 극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특히 노래 없이 춤만 추는 경우에는 주요인물의 내적인 심경이나 극적인 상황을 더 부각시켜주는 연출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극의 주요인물의 분위기를 발산시키는 집단적인 배경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코러스는 산문체가 아닌 운문체로 대부분 소리를 내면서 무대 위의 사건이나 움직임의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통해 관객은 상상을 발현하며 극을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받는다. 니체가 무엇보다 삶을 긍정하도록 만드는 그리스 비극에서 코러스 춤의 기능은 삶에 관한 긍정을 관객에게 전한다고 보는 것처럼 코러스의 이러한 표현방법은 관객의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므로, 이 순간에 관객들은 보편적인 일상의 신체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하는 신체적 전이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코러스는 극의 진행 과정 중에 퇴장을 거의 하지 않으며 주어진 대사 없이 침묵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는 점에서 관객의 역할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을 다문 채 앉아 있다가 다시 코러스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반복하면서 극 안에서 다채로운 변신을 거듭하곤 한다.

마지막으로 코러스의 역할은 객석과 무대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자라 할 수 있다. 매개자로서 코러스는 무대 위에서 주요인물이 이끌어가는 서사구조를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상황의 흐름을 설명하거나 또는 주요인물이 진절하게 표현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장면의 내용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코러스는 관객과 작품 사이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니체는 이 순간에 관객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심연과 장벽이 제거되고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고 강조한다(김말복, 2015). 그리고 극에서 인간의 힘들이 최고조로 달할 때 코러스의 춤은 관객에게 평정심을 되찾아 준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 비극에서 춤을 통해 관객들은 삶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코러스의 춤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고착된 삶의 모습으로부터 해체되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3.2.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를 통해 본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코러스 활용 논의

3.2.1.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작품 소개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는 2021년 9월 11일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차수정 순헌무용단의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순헌무용단 차수정 예술감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가혹한 운명을 가진 인물을 찾아 코로나 19로 각박해지는 일상에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안무했다고 밝힌다. 차수정 예술감독은 세상에서 외면받고 가족이나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목숨마저 스스로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심청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림으로써, 여전히 지금의 현실에서도 소외를 겪는 아무개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처음 심청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후로 무용작품으로도 여러 번 각색이 되었음에도,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는 ‘청’이라는 인물이 가진 무게감과 한국춤이 지니는 움직임의 원형은 지키면서도 소리, 의상, 공간, 움직임 등의 여러

무용예술 요소들을 코러스라는 역할을 활용해 컨버전스적인 동시대의 감각을 연출했다는 데에서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은 청의 탄생, 청의 죽음(세상을 마주한 청), 청의 용궁(바다 속에서), 청의 환생(천 길 파도 위, 꽃과 나비 춤춘다)라는 소재목의 총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무를 '코러스'처럼 활용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코러스의 역할이 어떻게 작품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에서 춤, 대사, 노래를 다층적으로 펼쳐가며 역할을 수행하는 코러스의 활용은 전통적으로 무용예술이 견고하게 지켜왔던 무대요소들을 해체시키며 단일한 장르의 한계를 넘어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변신의 잠재성'을 예술을 경유하며 강조하는 들뢰즈의 사유를 통해 경계를 허물며 끊임없이 한계를 재설정하는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잠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2.2.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코러스 활용 논의

본 연구의 주요 논의지점이 되는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1장과 2장에서는 「심청」의 원형으로서의 이야기 구조가 세밀하게 묘사되지 않고 커다란 틀의 흐름만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처럼 무대 위의 상수에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작품의 군무진인 코러스가 앉아 있는데, 작품의 공간은 코러스의 공간과 무대 중앙과 하수를 묶어 두개의 공간으로 또는 상수, 중앙, 하수의 세개의 공간 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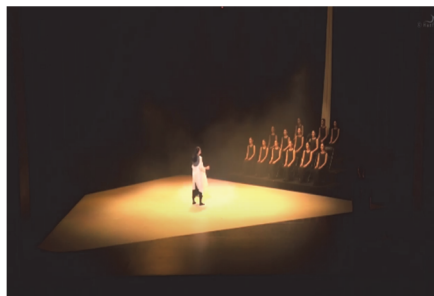


그림 3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무대공간

또한 사선으로 놓인 미니멀한 흰색 장판과 의자, 그리고 검은색 시스루 의상 등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활용은 마치 워크숍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프로시니엄 무대이지만 전혀 다른 색깔로 탈바꿈시킨다. 그리고 작품의 이 같은 무대공간의 활용은 코러스와 주요인물 청이의 관계를 다양한 분위기로 중첩시키면서 감각적인 연출을 이루어 낸다.

<그림 3>은 청이가 태어나는 장면과 청이 어머니가 청이를 낳다 죽은 장면, 그리고 청이가 자라서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 장면에서 코러스는 모두 마을사람과 같은 역할을 행한다. 그리스 비극에서 극중인물로서 코러스는 극의 서사가 가시화되는 상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듯이,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 코러스는 소리와 움직임에 의해 극적인 분위기를 가중시킨다. 청이가 태어날 때 코러스는 무대 하수로 가서 무대 뒤편에서 정말 아기를 낳고 있는 것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 ‘어머’, ‘아’ 등의 의성어와 함께 대단한 테크닉이 아닌 상황을 묘사하는 움직임을 통해 극적 효과를 표현한다.



그림 4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 나타난 코러스

또한 청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상수의 의자에서 한 명씩 하수로 국화를 들고 이동하며 한국춤의 선과 호흡이 어우러진 움직임을 실행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표현과 서정적인 음악 선율은 이야기의 흐름을 더 묵직하게 만들어준다. 작품에서 마임적인 동작과 운율적 소리, 한국적 색채가 녹아 있는 움직임과 음악 등의 요소는 매 장면마다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므로, 코러스의 신체는 어느 한 순간도 고정된 역할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들뢰즈의 ‘확정되기 이전의 변형 가능한 신체’처럼 이질적인 에너지들이 독특하게 결합하면서 관객들이 극에 몰입할 수 있는 감성을 자극시켜준다.

한편 <그림 3>의 오른쪽 장면에서 코러스는 주요인물인 청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무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이때 코러스는 극중인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의 두 장면 동일하지만, 청이를 조롱하고 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인물로 변신한다. 따라서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 나타난 극중인물로서 코러스는 극의 사건마다 음악, 움직임, 무대공간 등의 작품요소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생성하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5 가면을 쓴 코러스

그리고 작품에서 <그림 4>처럼 코러스가 사용하는 가면은 그리스 비극에서 활용한 가면의 의미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가면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코러스의 표현 방법이며, 그리스 비극에서 가면을 활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인간 자체를 표현하기 보다 인간의 극적인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였다. 이는 가면을 쓰지 않을 경우에 배우의 극중역할보다 인간 본연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것이다. 또한 극에서 인물의 분위기를 신비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그리스 비극의 극장은 야외에 위치해 있고 아주 규모가 컸음에도 음향시설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적인 표현을 더 시각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매체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였다.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는 첫번째 의미와 더 관계가 있어 보인다.

2 장 후반부에 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에서 코러스는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이때 가면을 쓴 코러스는 지속적으로 이중적인 감성을 발현하는 듯이 느껴지는데, 이는 청의 주변에서 함께 호흡하며 움직이는 장면에서 더 강화된다. 청의 뒤에 연이어 모습을 보이는 코러스의 이미지는 인당수 빠지라고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청을 못 가게 붙잡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무대 중앙에서 코러스가 가면을 벗어 얼굴과 대비되게 배치한 장면은 마치 가면은 죽음으로 얼굴은 삶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러스가 가면이라는 매체로 삶의 경계를 극적으로 표출하면서 청이 느끼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의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가시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수정 예술감독에 따르면 작품에서 청이 인당수로 가는 길은 실제적으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가면을 통해 분출되는 삶과 죽음의 경계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신체의 생명의 힘을 발현시키는 들뢰즈의 삶의 한계 너머와 맞닿아 있다. 들뢰즈에게 예술공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삶을 긍정하는 힘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는 청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가면 쓴 코러스의 움직임, 소리 등의 요소를 독특하게 결합하며 관객들에게 ‘삶에 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준다. 즉 작품에서 가면을 쓴 코러스의 표현방법은 극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관객의 감정을 몰입시킴으로써, 관객 각자의 감각을 통해 통상적인 일상의 신체로부터 탈피해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비극에서 코러스가 관객과 극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인 벽을 허물어 일체감을 가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 코러스의 역할 또한 춤의 경험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호명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층적 감각을 지각하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술공간에서 발현되는 촉지적인 감각을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손으로 보는 촉각’과 같은 촉지적 감각은 코러스가 마을사람, 관객, 중재자 등의 역할변신을 거듭하며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감성을 자극할 때 발산한다.

그러므로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코러스 활용방법은 동시대 춤의 탈장르적이고 융합적인 경향이 전통과 현대, 서사적 구조와 비선형적 구조, 소리와 침묵, 고도의 테크닉과 마임적 움직임, 삶과 죽음 등의 이분법적 관계를 지워내며 새로운 감각적인 경험으로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 나타난 코러스 활용방법을 들뢰즈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 창작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숙고할 수 있었다. 현재 춤 무대에서 간과할 수 없이 주요한 경향인 다양한 요소들의 융해와 결합에 주목하여 삶의 척도로부터 도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들뢰즈의 잠재적 시각이 어떻게 춤 무대에서 발현되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고대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특성인 코러스의 역할이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는 무대요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맺기를 하면서 발현되는지 분석하여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성을 거듭하는 한국 창작춤의 시각을 다양한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들뢰즈는 예술에서 표현된 잠재적 힘은 언제나 신체를 투과해서 드러난다고 보면서 들뢰즈의 신체적 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없던 것을 감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잠재적 층위에서 발견되는 그의 신체는 기관과 역할의 일대일 대응방법을 제거하고 걷는 입, 먹는 귀, 보는 다리 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해체와 결합도 용인되는 들뢰즈의 예술적 사유를 현대 한국 창작춤 안에서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 한국춤의 주도적인 사고와 변화에 도전할 용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코러스 활용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극중인물로서 코러스이다. 작품에서 코러스는 마을사람으로 변신하여 훈련된 신체 테크닉을 실행할 뿐 아니라 소리, 마임적 움직임 등을 다층적으로 활용하면서 서사적 흐름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코러스의 신체는 매번 새롭게 재설정되며 극의 분위기를 생성의 힘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극의 주요인물의 분위기를 발산시키는 집단적인 배경으로서의 코러스이다. 작품에서는 가면이라는 매체를 통해 코러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면은 죽음으로 가는 청의 심적인 고통의 가시화와 동시에 생명의 창조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극적으로 표출했다. 또한 가면을 활용한 코러스의 춤은 청의 내면 심리를 가중시켜 관객들의 감각을 발현시켜 완벽하게 자신에게 몰입하는 신체적 전이를 체험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일상에서 인식 불가능한 삶의 긍정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코러스이다. 이는 두번째 코러스의 역할과 적극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관객과 극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해체시켜 관객으로 하여금 관습적 인식이나 상투적인 감성 너머의 낮은 감각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다.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 코러스는 다양한 무용 요소들과 상이한 방식으로 접속하면서 어떤 의미 생성도 가능한 새로운 감각을 작동시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에서 나타난 코러스의 활용방법을 논의함으로써,

비유기적 맥락에서 한계를 실험하며 자신만의 주관으로 현실을 새롭게 읽는 들뢰즈의 예술적 사고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작품에서 나타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며 우리가 한국 창작춤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성찰을 할 수 있었다. 즉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는 한국춤의 본질이라 여겨져 온 어떤 경계지점들도 활짝 열어내며 ‘재현으로서의 존재 양상’이 아닌 ‘잠재적 가능성의 의미’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춤의 전통적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대적 감각을 통해 현대성을 담은 작품을 창조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들뢰즈의 ‘잠재성’ 개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淸, The Blue 바다를 열다」의 시각적 요소뿐 아니라 본질적인 창작배경과 사회문화적인 관계성의 고찰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 창작춤이 역동적으로 외형적 변화를 이뤄나가고 있음에도 ‘삶 속의 예술’이라는 한국춤 본연의 특성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말복 (2011). *무용예술코드*. 한길아트.
- 김말복 (2015). 니체의 이성비판과 20 세기 현대 춤의 반향. *무용예술학연구*, 54(4), 1-19. DOI : 10.16877/kjds.54.3.201505.1
- 김재인 (2013). 들뢰즈의 미학에서 “감각들의 블록”으로서의 예술 작품. *미학*, 76, 39-72.
- 나일화 (2010). *무용예술의 미학적 논의에 있어서 질 들뢰즈 사상의 수용과 의의: 들뢰즈의 '신체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동욱 (2002).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 서동욱 (2014).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문학과 지성사.
- 이나현 (2011). *유럽 컨템포러리 댄스에 나타나는 몸에 대한 시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leuze, G.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 Deleuze, G. (1981). *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 하태환 (역) (1995). *감각의 논리*. 민음사.
- Deleuze, G. (1981). *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 Trans, W. S. Daniel (2003).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leuze, G. (1983). *Cinema I: L'Image-movement*, 유상운 (역) (2003). *시네마 1: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역) (2004). *천개의 고원*. 새물결.
- Sauvagnargues, A. (2005). *Deleuze et l'art*, 이정하 (역) (2009). *들뢰즈와 예술*. 열화당.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the Chorus of “淸, Open the Blue Sea” Focusing on Deleuze’s Artistic Thinking

SEO HYEON LEE Lecture, Performing Arts, Korean National Sport University

Abstract

Based on Deleuze’s art theory of art,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by analyzing the method of using the chorus shown in “淸, Open the Blue Sea.” Focusing on the dismantling and combination of various stage elements, which are an indispensable trend in contemporary dance, this study determined how Deleuze’s potential view of challenge and change from the measure of life is expressed in Korean contemporary dance. In particular,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ancient Greek tragedies, the possibility of dispersing the perspective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which constantly reflects on the boundar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s suggested.

Keyword

Gilles Deleuze, Korean Contemporary Dance, Chorus, 淸, Open the Blue Sea